



보험·비은행 산업 환경변화와 전망

2022

한국금융연구원

 목차

- 01 보험산업
- 02 서민금융기관
- 03 정책서민금융
- 04 여신전문금융업

01



☐ 보험산업

1-1. 2022년 경영성과 동향

1-2. 2023년 보험산업 경영환경

1-3. 2023년 경영성과 전망

1-4. 2023년 경영 및 정책과제

1-5. 2023년 보험업권 주요 이슈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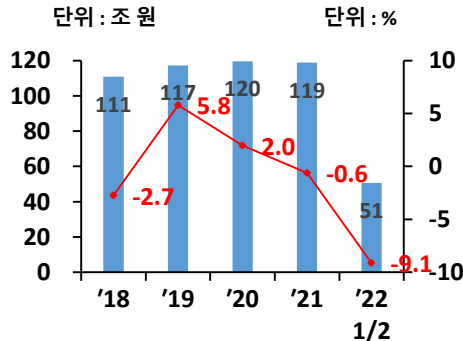
보험산업

1-1

2022년 경영성과 동향(생명보험)

- (성장성) 2022년 상반기 중 생명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50조 6,133억원으로, 보장성보험(+2.2%)은 증가하였으나 변액보험(-26.5%), 저축성보험(-17.5%) 등의 감소에 기인하여 전년동기 대비 9.1% 감소
- (수익성) 2022년 상반기 중 생명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30.7% 감소한 2조 1,807억원으로, 보험료수익 감소로 인한 보험영업손익 악화와 금융자산 처분이익 및 배당수익 감소 등으로 투자영업이익이 감소된 것에 주로 기인
- (재무건전성) 2022년 6월말 기준 생명보험사의 RBC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은 'RBC비율 완충방안' 시행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7.4%p 상승한 216.2%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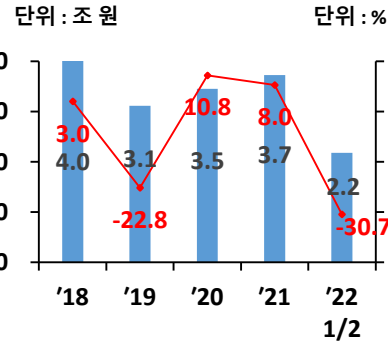
성장성(수입보험료)



■ 수입보험료(좌) —●— 증감률(우)

주: 전년동기 대비
자료: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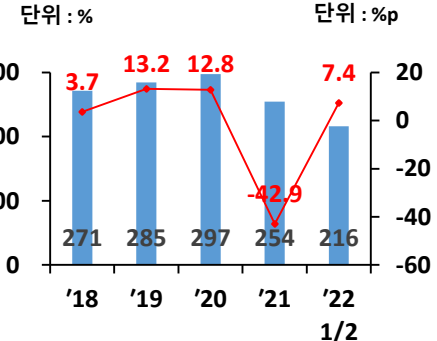
수익성(당기순이익)



■ 당기순이익(좌) —●— 증감률(우)

주: 전년동기 대비
자료: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지급여력비율(RBC)



■ 지급여력비율(좌) —●— 증감(우)

주: 전년동기 대비('22년 상반기는 전분기대비)
자료: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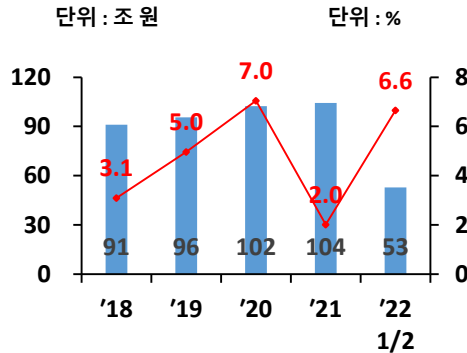
보험산업

1-1

2022년 경영성과 동향(손해보험)

- (성장성) 2022년 상반기 중 손해보험사의 원수보험료는 일반보험(+8.4%), 장기보험(+5.1%) 및 자동차보험(+3.0%) 등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6.6% 늘어난 52조 8,038억원을 기록
- (수익성) 2022년 상반기 중 손해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자동차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손해율 하락 등의 요인으로 인해 보험영업손실이 개선되며 전년동기 대비 35.7% 증가한 3조 4,337억원을 기록
- (재무건전성) 2022년 6월말 현재 손해보험사의 RBC비율은 'RBC비율 완충방안' 시행 등에 힘입어 2022년 3월말 대비 12.7%p 상승한 223.2%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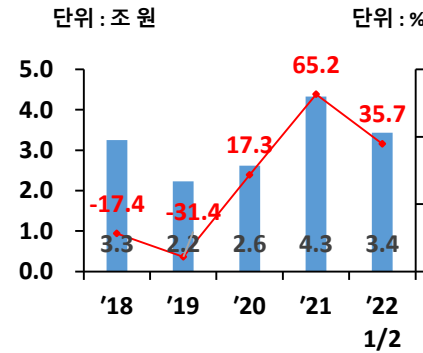
성장성(원수보험료)



■ 원수보험료(좌) ● 증감률(우)

주: 전년동기 대비
자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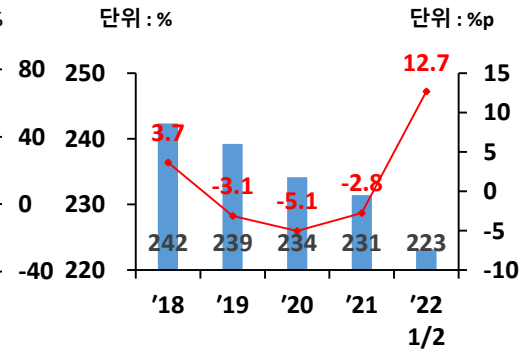
수익성(당기순이익)



■ 당기순이익(우) ● 증감률(좌)

주: 전년동기 대비
자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지급여력비율(RBC)



■ 지급여력비율(좌) ● 증감(우)

주: 전년동기 대비('22년 상반기는 전분기대비)
자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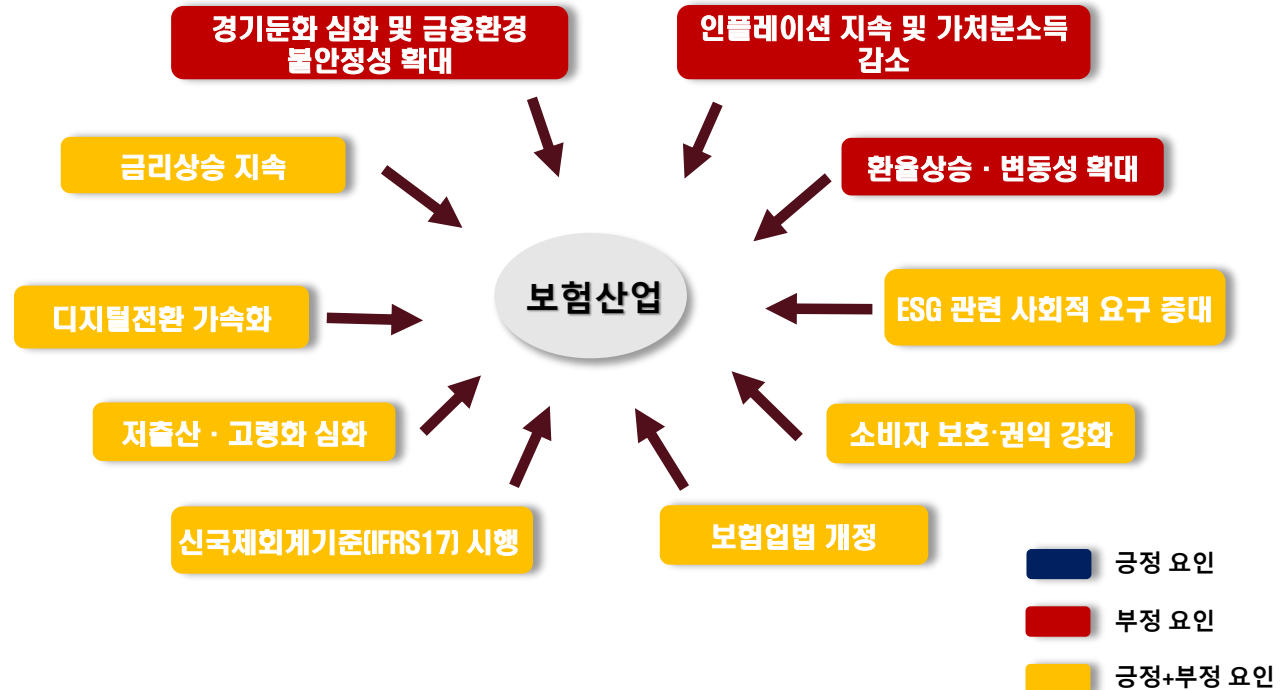
01

보험산업

1-2

2023년 보험산업 경영환경

- 인플레이션 및 금리상승 지속 등에 따른 경기둔화 심화, 실질 가처분소득 감소, 대내외 금융환경 불안정성 확대가 우려되고, 신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및 보험업법 개정이 예정인 가운데, 신성장동력 및 지속가능경쟁력 확보와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될 전망



01

보험산업

1-3

2023년 경영 성과 전망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성장성이 둔화되고 수익성도 정체·저하될 전망

생명보험

성장성

- 대내외 경제·금융환경의 변동성 및 불안정성 확대, 인플레이션 장기화 및 소비여력 위축 등의 제약요인이 신규가입 감소 및 기존계약 해지 등으로 이어지며 전반적으로 성장성이 둔화될 전망

수익성

- 금리상승 기조 하에 신국채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 완화와 신규 편입채권 등을 중심으로 한 자산운용수익률 개선 기대
- 대내외 금융시장환경 불안정성 확대에 따른 저축보험·변액보험의 실적부진과 보증준비금 부담 확대, 채권 처분익 감소 등으로 수익성이 정체·저하될 전망

손해보험

성장성

- 배상책임보험 시장 및 신규 보장영역 확대 등에 힘입은 일반손해보험의 성장세(성장폭 둔화) 예상
- 비대면채널 비중 확대 등에 따른 자동차보험 성장세 약화, 경기둔화 및 소비여력 위축 등으로 인한 신규 보험가입 감소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며 전반적인 성장성이 둔화될 전망

수익성

- 팬데믹 종료 및 경제정상화에 따른 손해율 개선효과 소멸
- 자동차보험료 인하 요구 및 온라인채널 등을 중심으로 한 보험료경쟁 심화
-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영업손익 변동성 증대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정체·저하될 전망

01

보험산업

1-4

2023년 경영 및 정책과제

[경영과제]

- ❖ 대내외 거시경제·금융환경 변동성 및 불안정성 확대에 대응한 리스크관리 강화
- ❖ 신국제회계기준 및 신지급여력제도 하에 재무건전성 관리·제고 및 지속가능 경쟁력 확보
- ❖ 신규 리스크 영역에 대한 위험관리자 역할 수행 및 신시장 확보
- ❖ 보험의 디지털 전환 추세에의 적극 대응을 통한 신성장동력 및 수익원 확보
- ❖ 친환경 탄소중립 실현 상품개발 및 투자활동 등을 통한 ESG 경영 확대
- ❖ 저출산·고령화시대 인구구조 및 보장수요 변화 등에 대응한 보험산업의 역할 모색 및 확대

[정책과제]

- ❖ 신국제회계기준 및 신지급여력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제도적 지원 지속
- ❖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및 신뢰 제고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및 제도 개선 지속
- ❖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수반되는 규제·감독 사항 보완
- ❖ 부동산PF 대출 등 고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독 강화
- ❖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보험산업의 중장기 체질 개선 및 지속가능경쟁력 기반 강화

01

보험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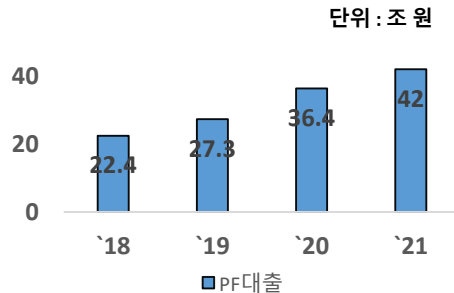
1-5

2023년 보험업권 주요 이슈

● 보험사 부동산PF대출 증가와 위험관리 필요성

- 보험사의 경우 최근 들어 고위험·고수익 대출로 여겨지는 부동산PF 대출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
 - 보험사 부동산PF대출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23.5%로 전체 대출 연평균 증가율의 약 3.9배, 기업대출 연평균 증가율의 약 2.1배 수준을 나타내며 2021년 12월말 기준 42.0조원(2018년 12월말 대비 약 1.8배 증가)을 기록
 - 특히, 저축은행, 증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다른 제2금융업권은 부동산PF대출 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반면, 보험사의 경우 별도의 규제가 없음에 따라 부동산PF대출이 보험사로 옮겨오는 풍선효과 발생 우려
 - 보험업권의 부동산PF대출은 상당부분 지급보증을 설정하고 1순위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최근 금융환경 및 부동산PF 시장 불안정성 심화 등을 감안하여 향후 신용위험 증대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보험사의 부동산PF대출 최근 추이



제2금융업권의 부동산PF대출 한도

	저축은행	증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사
대출 한도	신용공여총액의 20%	자기자본의 30%	여신성자산의 30%	없음

01

보험산업

1-5

2023년 보험업권 주요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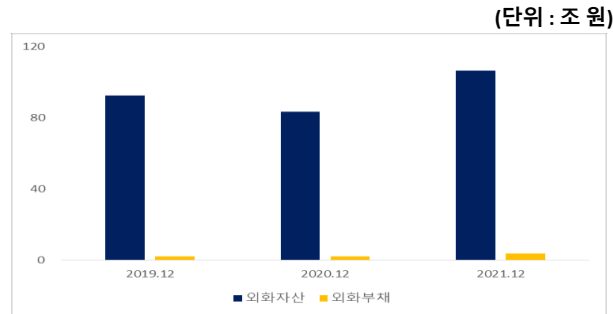
● 보험업권 환율 관련 리스크 평가

- 보험사의 외화유가증권 규모는 2022년 3월말 현재 약 128조원(생보 96조원, 손보 32조원) 가량인 것으로 파악*

* NICE 신용평가, '달러 강세가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 은행, 증권, 보험', 2022.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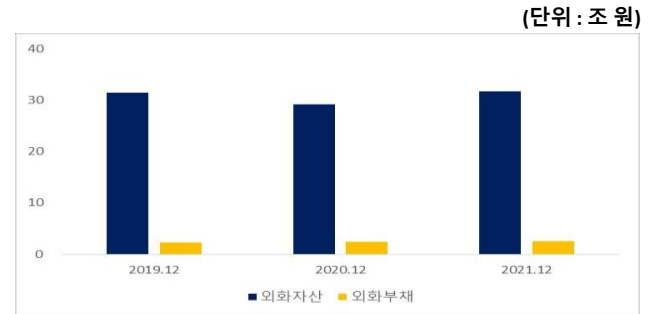
- 보험사의 경우 해외투자 등으로 외화자산 규모가 확대되었으나, 해외 보험영업 부문의 비중이 높지 않은 요인 등으로 외화자산 대비 외화부채의 규모는 과소한 상황
- 보험사는 감독규정에 의해 대부분 환헤지를 하고 있어 환율 상승 등의 환율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의 변동은 크지 않음.
- 다만, 환헤지 기간을 단기로 가져가는 경우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환위험 노출이 높아질(차환리스크 상승) 가능성이 있고, 환헤지 비용이 상승함으로 인해 외화자산의 실질 수익률이 하락할 우려 상존

생보사의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추이



자료: NICE 신용평가, '달러 강세가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 - 은행, 증권, 보험', 2022. 9
 기준: 13개 생보사

손보사의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추이



자료: NICE 신용평가, '달러 강세가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 - 은행, 증권, 보험', 2022. 9
 기준: 8개 손보사

01

보험산업

1-5

2023년 보험업권 주요 이슈

●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출 영향 및 과제

-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대규모 고객 기반을 가진 빅테크 기업의 보험시장 진출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

장점

-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은 디지털 혁신과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Croxson et al, 2022)
-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은 기존 보험사들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신상품 출시와 서비스 개선을 가져와 보험소비자의 혜택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음
 - 빅테크는 넓은 고객 기반과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경험 및 행동의 분석 등을 통해 새로운 보험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 빅테크의 보험산업 진입은 소비자의 편의성과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부작용

-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은 사업체휴 및 기업결합 확대 등을 통해 플랫폼 생태계를 독과점 형태로 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음
 -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디지털 혁신보다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려는 행태를 보임에 따라 이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이순호, 2021)
- 빅테크들은 서비스 플랫폼에서의 광대한 고객기반 등의 측면에서 기존 보험사들보다 경쟁 우위에 있어 시장 지배력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 존재
 -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 확대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소비자편의 저하 및 기존 보험회사들의 수익성 악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자료: Croxson, K., Frost, J., Gambacorta, L., and Valletti, T.(2022), "Platform-based business models and financial inclusion", BIS WP, No. 986

이순호(2021), "온라인 플랫폼 및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강화정책의 해외 동향 및 국내 규제감독에 대한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제30권 20호

-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보험회사들은 디지털 혁신을 활용한 위험관리 본연의 전문 영역을 강화하여 자체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01

보험산업

1-5

2023년 보험업권 주요 이슈

● 보험업법 개정 관련 *

*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내용 중심으로 정리

1 모집·판매 규제

- 향후 대면모집뿐 아니라 비대면 방식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새 판매채널이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행위기준을 규정에 추가하기 보다 보험 모집의 각 단계별로 모집절차에 관한 일정한 원칙 제시 관련
- 특히 디지털 판매채널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보안 사고, 시스템 오작동방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관련

2 진입·퇴출 합리화

- 비대면 판매,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보험영업, 빅테크 회사와의 경쟁 등 급변하는 환경에 보험회사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고객그룹, 상품, 판매채널 등에서 차별화 및 전문화가 필요한 경우 또는 소액단기 보험회사에 대해 복수허가를 허용하는 등의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 관련

3 사업조정

- 보험사가 사업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일부를 타 보험사에게 이전하는 계약이전제도 및 타 보험사로부터 잔존 보험계약을 이전 받아 자산운용 및 계약관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Run-off 보험회사 도입 관련

4 자산운용

- 2023년 도입될 신지급여력제도(K-ICS)에서 파생상품은 신용리스크 뿐 아니라 집중리스크도 측정하여 요구자본에 반영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파생상품을 투기 목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지므로, 현행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한도 규제는 폐지하고 파생상품이 헤지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제한하는 방안 관련

01

보험산업

1-5

2023년 보험업권 주요 이슈



● 퇴직연금 시장의 경쟁구도 변화 및 평가

- 금리 급등과 시장변동성 확대에 따른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수요 증대
 - 적시 자산배분 변화 욕구 증가 및 AI 기반 솔루션 (Robo Advisor 등)의 운용능력 검증 경쟁
- DC/IRP 상품의 디폴트 옵션 도입과 퇴직연금사업자 경쟁 격화
 - 디폴트 옵션 상품 승인심사(2022년 末) → Target Date Fund (TDF) 위주의 디폴트 옵션 시장 예상
 - TDF 상품구성요소 (편입자산, gliding path 등) 간의 실질적 차별화 노력 지속
 - 수수료 인하 경쟁 (수수료 체계의 적정성 등) → 퇴직연금 사업의 수익성 약화
- 퇴직연금 사업 관련 금융그룹 내 협업 (collaboration) 진화
 - 위험 성향별 모델 포트폴리오 (MP) 및 동적 포트폴리오 조정 (dynamic adjustment)
 - 계열사간 공동 협업
 - 대체투자의 계열사 연금자산 공동 편입 → 규모의 경제 극대화
 - 연금자산 관리 서비스 인프라 구축 (ETF 투자플랫폼, 사후관리시스템 등)
- 궁극적 퇴직연금사업의 경쟁력 (competitive edge) 결정요소
 - '캡티브(captive) 마케팅' → '자산운용 실력 및 서비스'
 - 연금자산운용의 지속 가능한 장기 시계 (Space)투자 (Sustainable & Long-term investment)
 - 글로벌투자, 대체자산편입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만기구조 장기화
- 보험사의 경우 퇴직연금사업 관련 관계회사 간 협업을 강화하고, 자산운용 부문의 역량 및 효율성(포트폴리오 다변화, 규모의 경제 등) 제고를 적극 도모할 필요

 목차

- 01 보험산업
- 02 서민금융기관
- 03 정책서민금융
- 04 여신전문금융업

02



☐ 서민금융기관

2-1. 2022년 경영 현황

2-2. 2023년 경영 환경

2-3. 2023년 경영 전망

2-4. 2023년 경영 과제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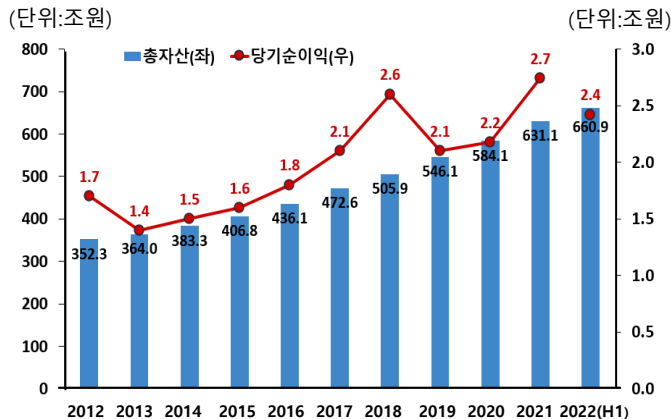
서민금융기관

2-1

2022년 경영 현황 - 상호금융

- 총 자산은 성장세 지속
 - '22월말기준 약 661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298조원 증가
- 당기순이익은 전년도 수준 상회 예상
 - '22월말기준 약 2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8%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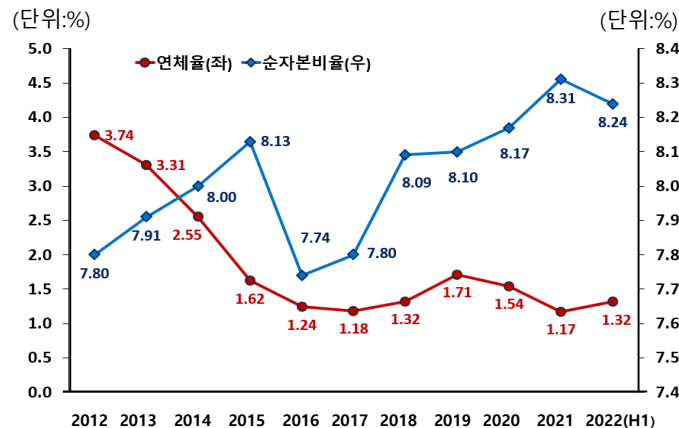
상호금융¹⁾
성장성 및 수익성 추이



주 : 1) 새마을금고 제외
자료 : 금융감독원

- 연체율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 지속
 - '22월말기준 약 1.32%로 전년말 대비 0.15%p 증가
- 순자본비율은 '18년 이후 8%를 상회
 - '22월말기준 약 8.24%로 전년말 대비 0.07%p 감소

상호금융¹⁾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추이



주 : 1) 새마을금고 제외
자료 : 금융감독원

02

서민금융기관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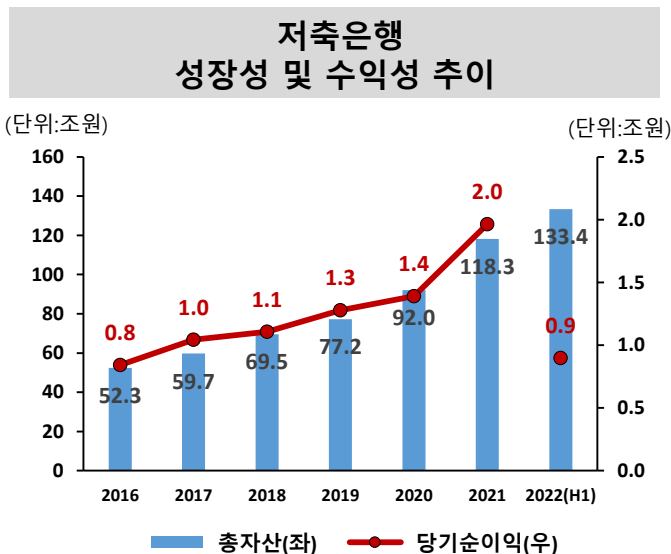
2022년 경영 현황 - 저축은행

● 총 자산은 성장세 지속

- '22월말기준 약 133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128% 증가

● 당기순이익은 전년도 수준 하회 예상

- '22월말기준 약 0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1%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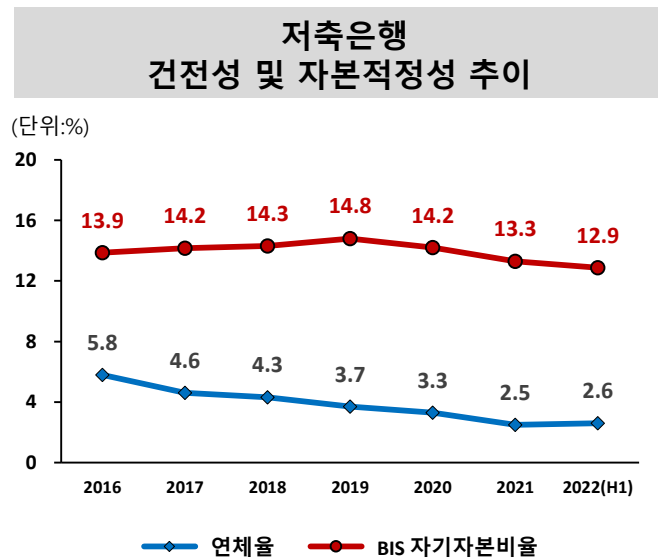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 연체율은 소폭 상승

- '22월말기준 약 26%로 전년말 대비 01%p 증가

● BIS자기자본비율은 규제비율을 상회

- '22월말기준 약 129%로 전년말 대비 04%p하락



자료 :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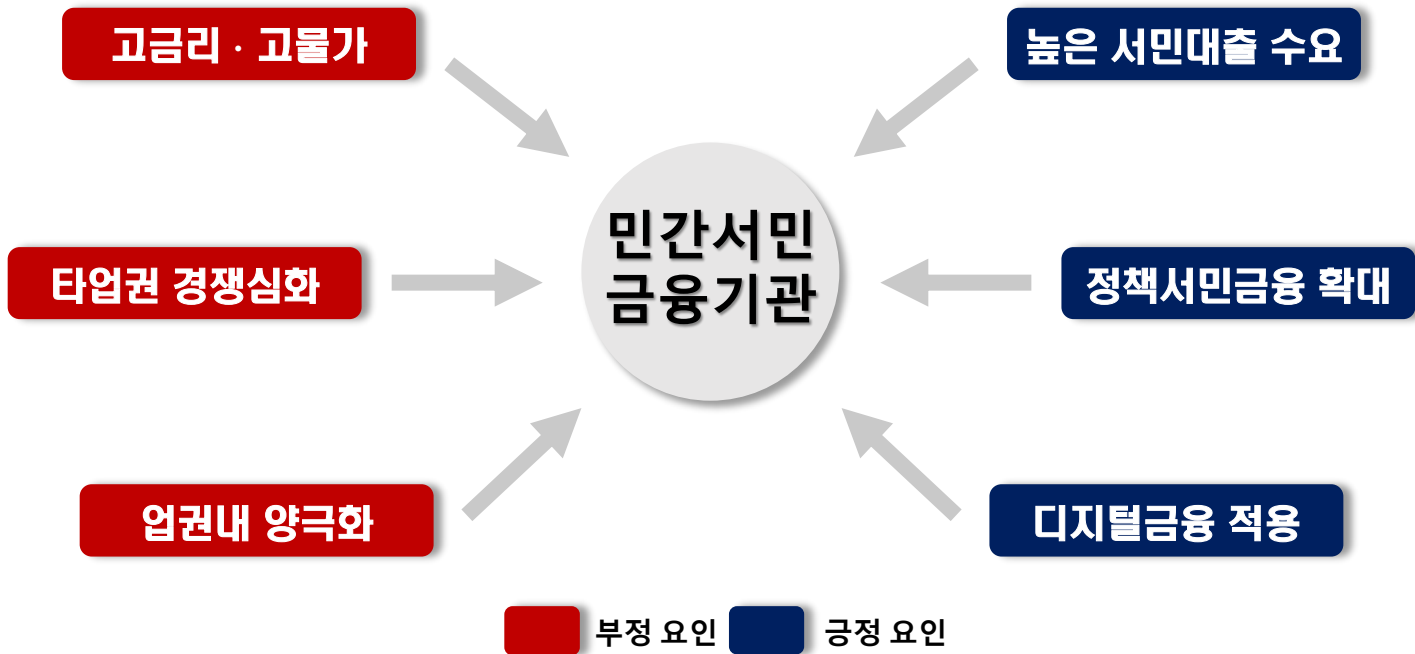
02

서민금융기관

2-2

2023년 경영 환경

- 고금리·고물가 지속 가능성에 따라 리스크관리가 요구되는 상황



02

서민금융기관

2-2. 2023년 경영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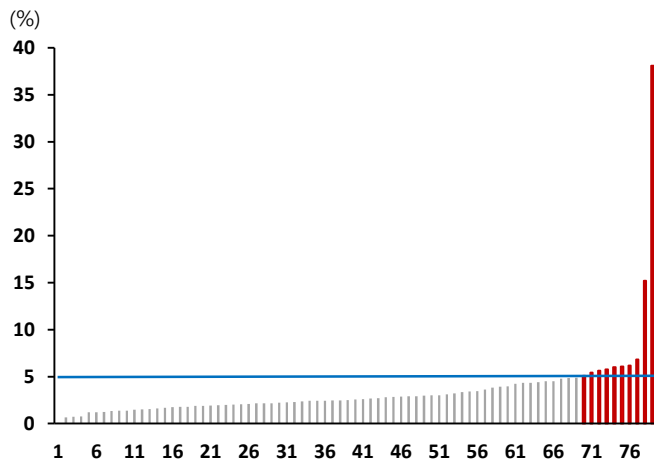
- 저축은행 양극화



● '22.6월말 일부 저축은행의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이 악화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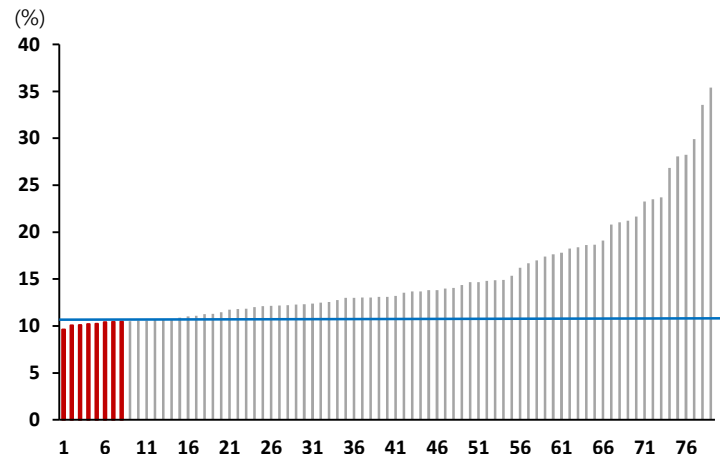
- 연체율 기준 상위 10%(연체율 5%)와 BIS 비율 기준 하위 10%(BIS 비율 10.5%)에 모두 해당하는 저축은행은 2개사
- BIS 비율 하위 10%에 해당하는 저축은행 중 전년동기대비 BIS 비율이 10% 이상 급격히 하락한 저축은행은 5개사

개별 저축은행
연체율 현황('22.6월말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개별 저축은행
BIS 비율 현황('22.6월말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 성장세 및 수익성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

상여기업

성장성

- 고금리, 고물가 등 체감경기 악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

건전성

-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화 가능성으로 총당금 추가 적립에 대한 필요성 증대

수익성

- 고금리로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큰 폭의 개선은 어려울 전망

저축은행

성장성

- 높은 서민 대출 수요가 지속되지만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성장성은 위축될 전망

건전성

-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취약차주 및 일부 소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건전성이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

수익성

-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예대마진 축소가 전반적인 수익성의 둔화를 유인할 가능성

02

서민금융기관

2-3

2023년 경영 전망



02

서민금융기관

2-4

2023년 경영 과제



❖ 거시경제 여건 악화 및 유예조치 종료 등에 따른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리스크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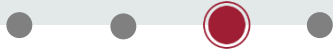
❖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대출의 경우 비대면이라는 특성을 감안한 대출 리스크관리 체계 마련

❖ 경기둔화 시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서민금융과의 연계 강화

❖ 지역금융기관이라는 정체성에 부합하는 부실자산 처리를 통해 지역경제와의 상생 도모

❖ 금융사고를 방지하여 하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 필요

03



☐ 정책서민금융

3-1. 2022년 정책서민금융 현황

3-2. 2023년 정책서민금융 환경

3-3. 2023년 정책서민금융 정책과제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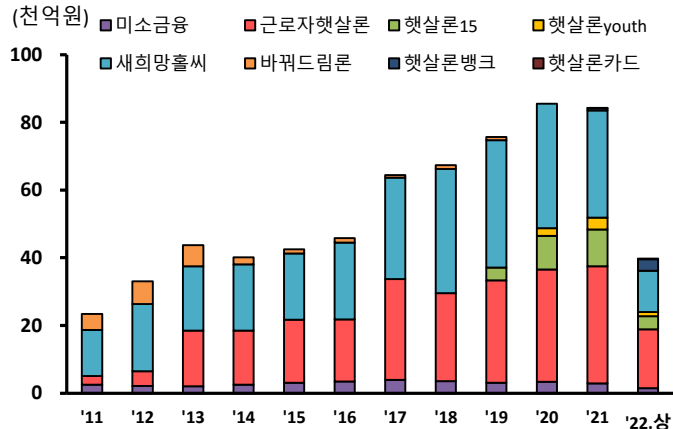
정책서민금융

3-1

2022년 정책서민금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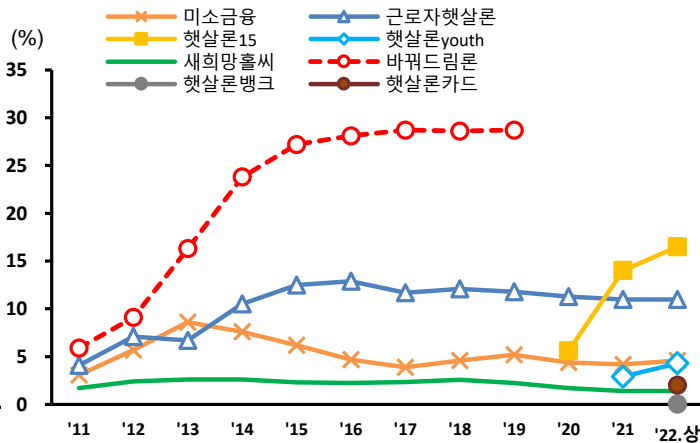
- 2022년 상반기 정책서민금융 대출규모가 약 4조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12.9% 감소하였으나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 민생안정 대책으로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는 하반기에 대폭 확대될 전망
- 물가·금리 상승, 경기둔화 등 경제여건 악화로 햇살론15, 햇살론 youth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서민금융 중심으로 부실률 상승 전망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대출실적 추이



자료 : 서민금융진흥원
 주: 미소금융은 민간사업수행기관 및 전통시장 대출 제외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 및 대위변제율 추이



자료 : 서민금융진흥원
 주: 미소금융과 새희망홀씨는 연체율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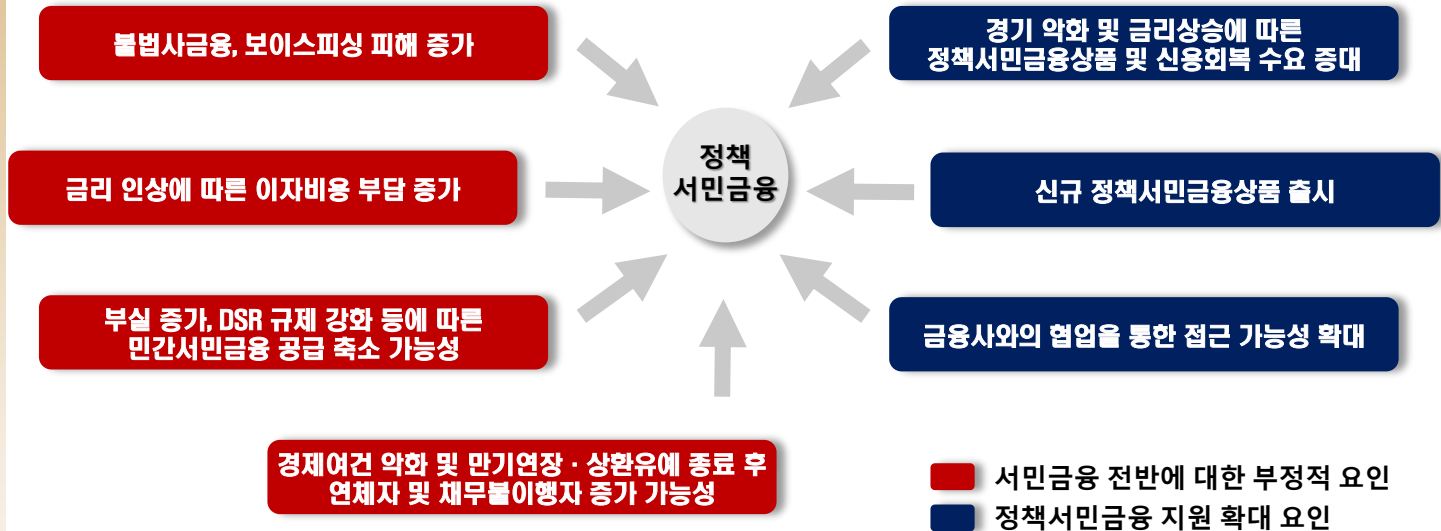
03

정책서민금융

3-2

2023년 정책서민금융 환경

- 경기둔화로 인한 서민금융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서민층 체감경기 악화, 물가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서민층의 신용위험 상승으로 민간금융회사들의 소극적인 서민금융대출 취급 유인 발생
- 서민 및 취약계층의 유동성 애로 발생 가능성이 고조되어 정책서민금융지원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03

정책서민금융

3-3

2023년 정책서민금융 정책과제

❖ 서민금융 수요 증가에 따른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 사례 확대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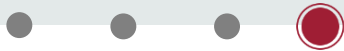
❖ 서민금융 수요의 확대에 정책서민금융만으로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므로 민간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

❖ 정책서민금융 수혜자 및 지원탈락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바탕으로 정책서민금융의 실효성에 대한 분석과 신규 상품 출시에 활용

❖ 신규 상품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과의 차별화 및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필요

❖ 새출발기금,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 프로그램들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조화로운 지원을 통해 증가하는 신용회복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

04



☐ 여신전문금융업

4-1. 2022년 경영 현황

4-2. 2023년 경영 환경

4-3. 2023년 경영 전망

4-4. 2023년 경영 및 정책과제

04

여신전문금융업

4-1

2022년 경영 현황 - 카드사



● '22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6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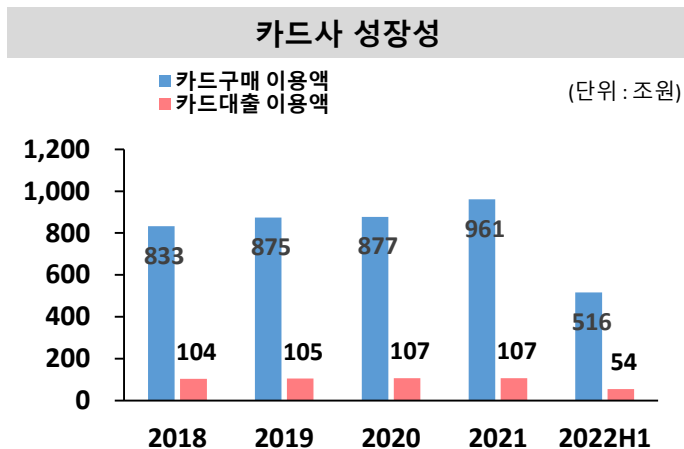
- 신용판매 부문 수수료 수익 중심으로 한 총수익 증가(+9,776억원)가 이자비용, 대손비용, 판관비 증가 등(+8,477억원)을 상회

● '22.6월말 총채권 연체율은 1.05%로 전년말 대비 0.04%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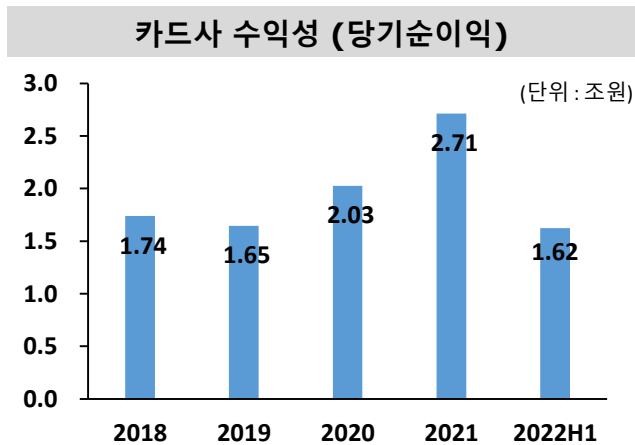
- 카드대출 연체율은 전년말 대비 하락(0.21%p)한 반면 신용판매 연체율은 0.58%로 전년말 대비 소폭(0.04%p) 상승

●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전년말 대비 하락하였으나 전 카드사가 경영지도비율을 상회

- '22.6월말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0.1%로 전년말 대비 0.7%p 하락하고 레버리지비율은 55배로 전년말 대비 0.3배 상승



자료: 금융통계정보,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통계정보, 금융감독원

04

여신전문금융업

4-1

2022년 경영 현황 - 비카드 여전사

● '22.6월말 총자산은 226.9조 원으로 전년말 대비 9.4% 증가

- 고유업무 자산 비중(339%)이 감소하는 가운데 기업대출은 834조 원으로 전년말 대비 11.1조 원 증가

● '22년 상반기 순이익은 2.1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

- 대출 확대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6,981억원,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 등에 주로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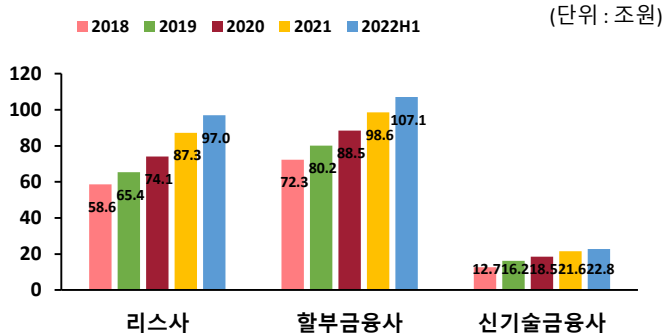
● '22.6월말 연체율은 0.88%로 전년말 대비 0.02%p 상승

-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36%로 전년말 대비 0.03%p 상승

●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전년말 대비 하락하였으나 경영지도비율(7%)을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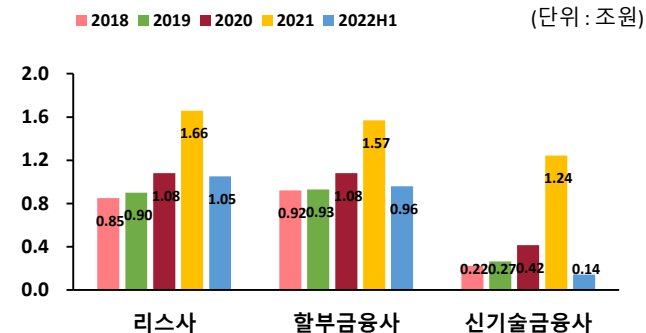
- '22.6월말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7.1%로 전년말 대비 0.1%p 하락하고 레버리지비율은 65배로 전년말 대비 0.2배 상승

비카드 여전업 성장성 (총자산)



자료 : 금융통계정보, 금융감독원

비카드 여전업 수익성 (당기순이익)



자료 : 금융통계정보,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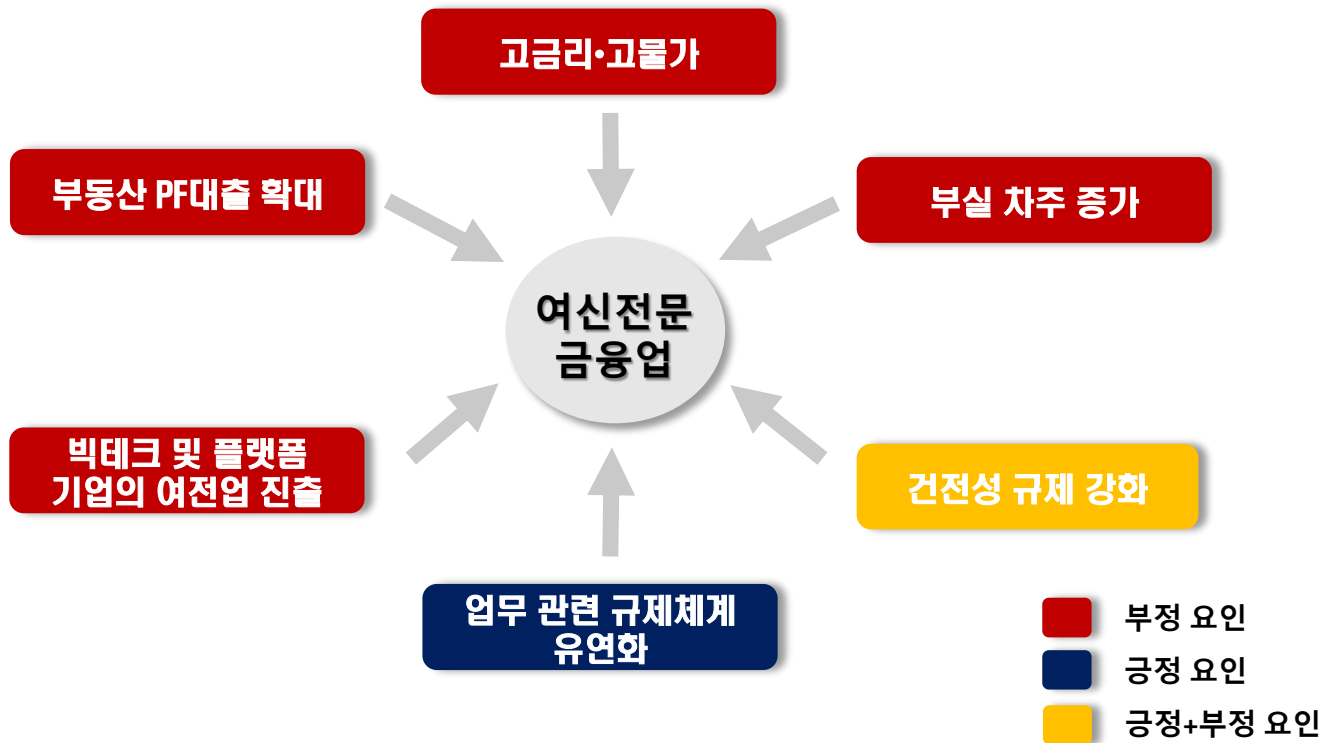
04

여신전문금융업

4-2

2023년 경영 환경

- 조달여건 및 자산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 전략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



04

여신전문금융업

4-2

2023년 경영 환경 - 조달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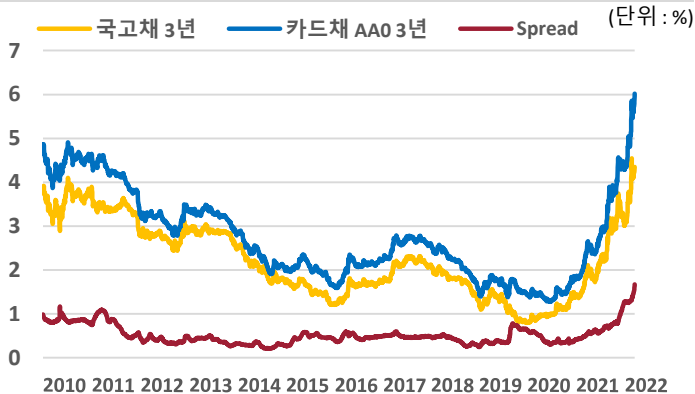
● 카드채 AA0 3년물과 국고채 3년물 간 금리 스프레드는 지속적으로 확대

- 100bp 미만의 스프레드를 유지하던 추세를 벗어나 2020년부터 꾸준히 상승하여 20221020일 현재 167bp 수준
- 향후 기준금리 상승 기조가 유지될 경우 해당 스프레드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

● 카드채 간 만기별 수익률 스프레드 확대는 조달구조 단기화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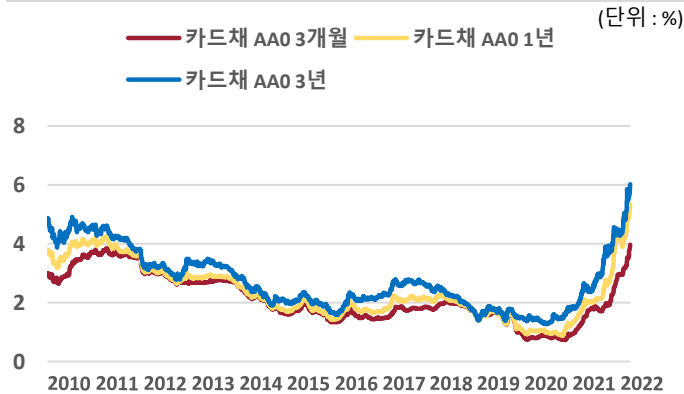
- 20221020일 현재 카드채AA0 3개월 물과 3년물의 수익률 스프레드는 205bp 수준
- 카드채의 장단기 스프레드 확대는 만기도래 채권 차환 시 조달구조를 단기화하여 유동성위험에 취약한 구조를 야기

3년 만기 카드채AA 수익률



자료 : 인포맥스

카드채AA 만기별 수익률



자료 : 인포맥스

04

여신전문금융업

4-2

2023년 경영 환경 - 자산건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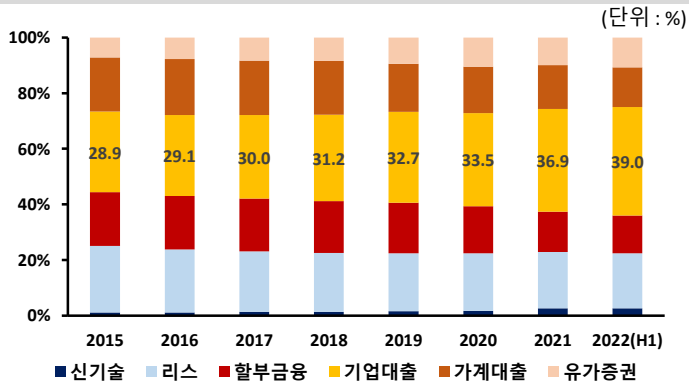
● 비카드 여전사의 기업대출 증대는 경기불황 시 위험요소로 작용 가능

- 할부, 리스금융의 경쟁 심화로 인해 비카드 여전사의 영업자산 중 기업대출 비중은 꾸준히 증가(226월말 기준 39.0%)
- 금리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경기둔화가 장기화 될 경우 한계기업의 증가는 비카드 여전사의 건전성에 위험요소로 작용

● 부동산PF 대출의 자산비중 증가는 비카드 여전사 자산 건전성에 주요 위험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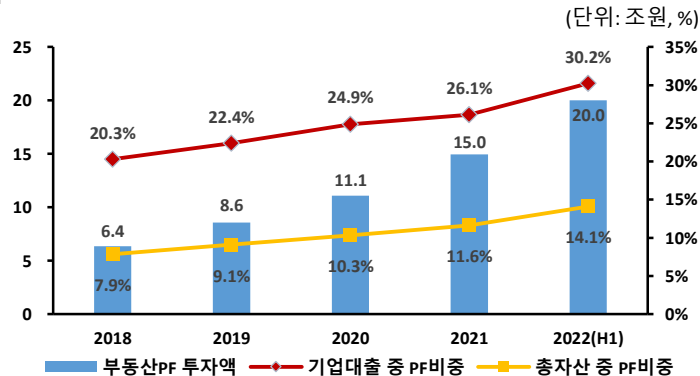
- 비카드 여전사의 부동산 PF투자는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26월말 약 20조원을 상회
- 부동산 여신의 부실 발생 여부가 비카드 여전사의 수익성 및 자산 건전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 필요

비카드 여전사 영업자산 구성 현황



자료 : 금융감독원

비카드 여전사 부동산PF 익스포져



자료 : NICE신용평가, 캐피탈 18개사 업무보고서

04

여신전문금융업

4-3

2023년 경영 전망



● 올해에 비해 성장성 및 수익성은 제한되고, 건전성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

신용카드

성장성

- 지속적인 비대면 결제 성장세 및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업무 영역 확대 가능성
- 고금리와 현재 레버리지 규제 하에서 추가 차입 등을 통한 사업 확장에는 다소 제한

건전성

- 조달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금리 상승으로 인한 한계차주 증가 가능성
- 결제성 리볼빙에 대한 연체관리 강화 및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수익성

- 카드론 등 대출부문에서의 마진 감소에 의한 수익성 위축 가능성
- 현 가맹점수수료 체계 하에서 조달 및 대손비용 증가 시 수익성 저하 가능성

비카드여전

성장성

- 플랫폼 기업의 여전업 진출로 인한 경쟁 심화
- 투자자산의 디지털화 등으로 인해 신기술금융의 성장 가능성도 상존

건전성

-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금리 상승 지속 시 부동산 PF대출 중심으로 부실 가능성 증가
- 기업금융 부문에서 한계기업의 증가

수익성

- 조달비용 상승과 금리상승으로 인한 가계대출 수요 정체
- 단, 경기회복 시 기업금융에서의 고수익 실현 가능

04

여신전문금융업

4-4

2023년 경영 및 정책과제



❖ 조달여건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여력 확충 및 자산건전성 관리

❖ 여신 심사 능력 제고와 고객 데이터 체계화를 통한 체질 개선

❖ 경기 회복 이후 성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사업 기반 모색

❖ PF대출 부실 가능성 등에 대비한 여전업 자산건전성 감독 강화

❖ 여전업과 전자금융업 간 결제시장에서의 규제 형평성 제고

❖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감사합니다.

2022년 | 한국금융연구원